

아시아에서의 포르투갈어 연구*

이 승 덕**
(Lee, Sung-Doc)

〈Abstract〉

O estudo de língua portuguesa na Ásia

O infante D. Henrique, apelidado o Navegador, iniciou as grandes navegações de Portugal. Ele fundou uma escola para marinheiros em Sagres, onde os portugueses aprendiam a arte de navegar. D. Henrique sabia ser possível chegar às Índias viajando pelo litoral africano.

O navegador Vasco da Gama em 1498 chegou à Índia. Goa tornou-se a sede do poder militar e administrativo português no Oriente e foco de difusão da língua e culturas portuguesas.

No período em que os portugueses estiveram na Índia desempenhava um papel central em diferentes âmbitos sociais: Atualmente, o português falado é em grande maioria pela população idosa. A população mais jovem ainda pode entender o idioma. Especialmente o nome da família, nome de rua, placa da loja, nome de festas usam-se português. Na península de Malaca, ainda hoje Kristang é falado por cerca de 1400 pessoas nas localidades. Em Malaca, na colônia portuguesa há muita gente, especialmente os

* 본 논문은 200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교수

E-mail: leesd@hufs.ac.kr

descendentes de eurasiatic, filho de português e oriente, falam português entre eles. Também tem festa portuguesa e até um grupo de Fado. A língua de Macau ou Patuá é um dialeto colonial que se enraizou e que foi transmitido de pais a filhos durante 300 anos. Até hoje, o português é língua oficial de Macau, mas quase nenhum macaense o utiliza na vida cotidiana com exceção do uso escrito que se dá em placas de lojas, nome de ruas e em documentos oficiais de Macau.

O português na Ásia tornou-se muito diferente do de Portugal tanto na pronúncia quanto na gramática e vocabulários.

[Key Words: Kristang/ Patuá/ Idioma/ língua Oficial/ Dialeto]
[주제어: 말라카포어/ 마카오포어/ 관용어/ 공식어/ 통용어]

I. 들어가는 말

미안하다(I am sorry)는 영어가 싱가포르에서는 'Sorry lah'이다. lah는 '하네요'란 뜻의 중국어다. 싱가포르에선 Yes도 Yar로 바뀐다. 의문문에서는 ka?가 사용되는데 이 말의 어원은 중국어의 了다. r이 l로 발음돼 very→vely, already→reddy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식 영어, 즉 '싱글리시'의 전형이다. 중국식 영어를 '칭글리시'라고 하는데 작별할 때 쓰는 good-bye가 baibai로 바뀌는가하면 대도시 곳곳의 주유소(gas station)는 오일 게이트(oil gate)라는 국적 불명의 영어로 대체됐다.

인도식 '헝글리시'의 연기하다(postpone)의 반대말이 영어사전엔 없는 prepone이다. airdash(갑작스러운 비행기 이동), eve-teasing(성추행) 등도

인도인이 아니면 알아듣기 힘들다. 처거(chugger)는 채리티(charity)와 머거(mugger)의 합성어로 거리에서 자선금을 모금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록업(rock up)은 도착, 후버(hoover)는 재빨리 먹는 동작, 루비머리(ruby murray)는 카레의 속어다.

일본에서도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를 파소콘(pasocon)이라 한다. 워낙 정통 영어와 거리가 멀어 일본식 영어에는 재플리시, 쟁글리시(Janglish)라는 말까지 붙었다.

이 현상은 이중언어를 사용해서 생긴다. 더구나 싱가포르처럼 다인종·다언어·다문화로 구성된 나라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조선일보, 2009: 11).

이 외에도 타글리시(필리핀 타갈로그어 +영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콩글리쉬처럼 아시아지역에서 쓰이는 포어는

Goa 포어는 indo-português로 cana de açúcar를 canna de assucar로 표기하고 Malaca 포어는 Kristang(malaca-português)이며 como se chama를 qui bos nome로 쓴다.

Macau 포어는 Patuá(macau-português)이며, muito cedo를 cedo-cedo로 쓴다. 우리나라에도 tá bom(좋다)가 변하여 tátá bom(아주 좋다)나 짬빵, 호빵, 보리빵, 짬(한국어)+빵(포르투갈어)와 같은 우리나라 식의 변형된 포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쓰이는 포어가 유럽포어와 어떻게 변형되어 쓰여지는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포르투갈의 동양진출

1498년 5월 20일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는 향료와 전설의 나라 인도 켈리컷에 도착했다. 유럽인들이 인도에 큰 관심을 둔 것은 그들의 기호품인 후추를 비롯한 향료가 인도의 특산물이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인(포인)들은 인도를 동양으로의 교두보로 삼아 세일론, 뉴기니아로 마침내 일본까지 뛰어 돌아다녔고 신대륙의 중심부에 포르투갈왕국의 기와 십자가를 꽂음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포르투갈 왕국은 인도의 전진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총독과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발견과 영토확장이 촉진되었다. 알메이다(D. Francisco de Almeida), 알부께르끼(Afonso de Albuquerque) 등 역대 부왕들의 노력으로 인도의 방어는 물론 페르시아만과 홍해의 제해권을 얻었고 멀리 인도네시아의 말라카(Malaca)와 중국대륙의 마카오(Macau)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아직도 태평양상의 포도아 전통을 고집하는 Java 지역에서도 포어노래를 들을 수 있으며, 포도아인들이 포교할 때 지은 아주 웅장한 교회를 박물관으로 보존한 도시, Tagu에는 아직도 가톨릭교인들은 현지 지방포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Taroy(Bornéu)에서는 X-mas성가는 포어로 부르고 Flores(꽃)이는 섬은 포도아인들이 이름 붙인 섬인데 그곳 주민들은 답창이나 기도를 포어로 한다. 동티모르에서는 아직도 포어가 공식언어로 쓰이고 있다. 1999년 독립한 동티모르 국민의회는 포르투갈어를 동티모르 공식어로 테툼어를 국어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이곳 아침인사는 봉지아(Bom dia)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포어는 “무역과 포교”의 양면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이들의 외국어는 서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1543년 種子島에 도착한 포도아인에 의해 첼포(조총)가 들어온 뒤, 매년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것이 유럽문화의 첫 접촉이었다. 특히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포어는 주로 상품과 관계된 것이나 상품 이름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당시 널리 쓰이게 되어 일본어화되어 정착하여 갔으며, 그 교역의 중단과 더불어 외국어도 사라져갔다.

이러한 무역관계를 통하여 아직 일본어에 남아 있는 포어로 아래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포어	일본어	한국어
cruz	クルス (十字架)	십자가
missa	ミイサ) 미사 (礼拜)	미사
pão	パン	빵
capa	カッパ(合羽) (雨具)	비옷
gibãl	ジバン) ジュバン(襦袢) (肌着)	일본옷의 속옷(맨몸에 직접 입는 짧은 홰옷)
velludo	ビロウド) 비로드(天鵝絨)	비로드, 벨벳
botão	ボタン(鈕)	단추
raxa	ラシャ(羅紗)	나사(두꺼운 바탕에 보풀을 세운 모직물)
meias	メリヤス(莫大小)	메리야스(면 또는 모의 실을 신축성 있게 뜬 것)
pao de Castella	カステエラ) 카스테라(加須底羅)	카스텔라
caramello	カルメイラ) 칼메라(浮石糖)	카라멜로(누런 설탕에 물을 부어 끓인 다음 소다를 넣어 부풀렸다 식혀서 굳힌 과자)
confeitos	コンペイトウ(金米糖) 콘페이토ー	별사탕
bolo	ボオロ) 보오로	볼로(포르투갈식 비스킷)
zamboa	ザボン	자몽

tabaco	タバコ[煙草]	담배
sabão	サボン)シャボン (石鹼)	비누
carta	カルタ	놀이딱지(종류가 많으나 그림과 문자를 맞추는 카 드 게임이 일반적.)
frasco	フラスコ	프라스코
tutanaga	トタン	함석
Italia	イタリア	이탈리아
Ingles	エゲレス)イギリス	영국
Grecia	ゲレシヤ)ギリシヤ	그리스

등으로 현대사전에도 기재되어 있고 상당수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543년 다네가시마에 도착한 포인들은 신무기 철포(조총)를 가지고 왔다. 이곳 다네가시마에서는 철포의 국산화를 위해 섬의 전기능이 집중되었으며 철포제작 책임자인 야이타 킨베는 포르투갈인의 총의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려고 당시 16세였던 딸 와카사를 포르투갈인과 결혼시켰다. 현재 니시노모테시 구모노시로 묘지에는 『와카사 충효비』가 세워져 있다. 이 철포가 조총(鳥銃)이라고 불린 것은 날아다니는 새도 명중시킬 수 있다고 하여 명명된 별칭이었다. 이 철포의 출현(즉, 포인들이 일본에 온 이후)과 더불어 일본에서 앞뒤 생각 없이 무턱대고 저지른 경솔함 또는 무모함을 나타내는 낱말은 無鐵砲(무테뽀)이다. 결국 총(철포)없이 전투하는 것은 경솔하거나 무모하다는 뜻이다(월간조선, 2005: pp 420-426).

일본의 대표적인 튀김 요리로 어패류에 밀가루를 입혀 튀긴 텐뿌라는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그 요리법이 전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포르투갈어에 temperar라는 말이 있다. ‘조리하다, 조제하다’란 등의 뜻을 가진 동사인데, 여기에서 온 말로 tempero(조미, 양념)라는 말도 있

다. ‘텐뿌라’라는 말은 아마도 포르투갈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1643년에 처음으로 포르투갈 상선이 남큐슈(南九州)에 표착한 이래 나가사키에는 선교사 등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가사키에서 외국인이 튀김요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아채고 ‘temperar(조리한다)’이라고 대답했다. 포르투갈인이 ‘조리한다’고 대답한 것이 일본인에게는 음식 이름을 말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텐뿌라’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다(김태정, 1997: 91).

포르투갈인들이 기록한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들 양국 간의 접촉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도 pāo(빵), capa(비옷), velludo(우단), raxa(모직), sabão(비누) 등 포어가 남아있는데 이는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입되었다. 한편, 이런 포르투갈의 발자취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포르투갈인들이 브라질로부터 들여왔던 아프리카의 고추인데, 한국인들은 이를 김치 담그는데 아주 훌륭하게 활용하였다.

아마도 한국사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포인들의 등장은 임진왜란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 포인들은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에 합류하여, 특수 잠수부로서 일본 함대를 기습 공격하는 군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포르투갈 병사들의 참여는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상주할 수 있도록 인가한 1557년 이후로 중국과의 밀접하면서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 상인과 예수회 신부들이 평화를 염원했기에 가능했다.

이미 17세기 중엽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1604년에 처음으로 한국 역사문헌에서 서양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이름은 조앙 멘데스(João mendes)로 포르투갈 상인이었는데, 그는 한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충무에서 벌어진 해전 이후 일본과 중국 국적의 49명의 선원들과 함께 체포되

었다. 그는 한국에서 4개월간 포로로서 체류한 후에 중국으로 귀환조치 되었고, 이 이야기는 등록유초(TUNGNOK YUCHO: 조선왕조의 국경 방위에 관련한 17세기 문헌-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실려 있다.

한국에 관한 포르투갈의 역사문헌으로는 아래의 참고 문헌과 역사관계에 관한 연대기를 들 수 있다.

1. 토메 피레스(Tomé Pires 1468-1540)¹⁾는 동양 나라들의 관습에 관한 『쑤마 오리엔탈』(SUMA ORIENTAL)이라는 책에서 중국과 타타르 사이에 위치한 구오르스(GUORES)라는 곳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구오르스라는 말은 발음상 한국을 의미하는 게 틀림없다.
2. 웨르나옹 멘데스 뻬투(Fernão Mendes Pinto 1509-1583)는 ‘편력기’의 저자로서 1614년에 출판된 이 책은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는 1537년과 1558년 사이에는 아시아를 두루 여행하였다. 1540년에는 칼렘플루이(Calemply)의 왕실 무덤들을 방문했는데 그 곳은 중국과 타타르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닝뿌(Ningpu)로부터 북쪽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멘데스 뻬투는 흰옷을 입은, 중간키의 눈이 작은 중국인들과 비슷한 그러나 의복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다.
3. 웨르나옹 바즈 도우라두(Fernão Vaz Dourado 1520-1580)는 인도의 고아에서 출생한 탁월한 지도제작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를 1568년 완성하였는데, 그 지도에서 한국을 꼬라이(CORAI)와 매우 근접한 곳

1) 토메 피레스(Tomé Pires) 말라카를 정복한 직후인 1512-1515년 사이에 말라카에서 지낸 리스본 출신의 동양충독이다. 그는 말라카에 머무르던 중, 인도 고아에 본부를 두고 동아시아로의 세력 확장을 지휘하던 포르투갈 부왕의 명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황제에게 포르투갈과 중국 양국 간 교역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중국 황제에게 포르투갈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라이(CONRAI)란 단어로 표기했다.

4. 가스파르 빌렐라(Gaspar Vilela)는 교토에 성당을 설립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1554년부터 1570년까지 16년 동안 살았다. 그는 1571년에 쓴 편지에서 ‘한국왕국’(O Reino da Coreia)이란 표현을 썼으며 “일본에서 열흘을 걸려 여행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4년 넘게 그 나라를 방문하고 싶었다. 이 나라를 통하면 쉽게 중국의 왕이 사는 북경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5. 도밍구스 몬페이루(Domingos Monteiro)는 한국을 1577년에 최초로 방문한 서양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극심한 폭풍우로 인해 마카오와 일본을 왕래하는 배가 뱃길을 이탈하게 되어 한국의 해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의 저서 『극동지역의 귀족들』(Fidalgos in the FAR-EAST: 1550-1770, The Hague 1943)에서 밝히고 있다.
6. 종탁(CHONG TAK) 연대기의 한국 문헌 약포집(YAK-PO-CHIP)에는 1582년 마리(Mari)란 서양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제주도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난파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5년 1582년에는 종작(CHON ZAK)이 북경황실에 연례특사로 향했는데 그가 이 서양인을 데려갔다.
이 마리(Mari)는 ‘마링에이루’(Marinheiro, 해군) 포르투갈어의 첫 두 음절을 가리킨다. 이 ‘마리’는 아마도 성 쾨바스피아웅 정크선의 선원이었을 것이다.
7. 임진왜란(1592-1599) ‘천조장사전별도(Chunjo Jangsa Jeonbeoldo)²⁾ - 김

2) “불랑국(佛糧國)의 해귀(海鬼) 4명은 살결이 칠(漆)과 같이 검고 누르스름한 머리가 방석 돌레처럼 펼쳐졌어도 물 속에 들어가 적선을 뚫었다”고 쓰여져 있다. 여기에 불랑국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한자사전에 의하면 명나라때 중국에 통상하러 온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으나 1557년에 이미 중국 마카오 항에는 포르투갈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도 불랑국이라 함은 포르투갈인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귀라는 뜻은 한자사전에 의하면 바다 속

윤 가문의 유산과 『왕조실록』 등과 같은 한국의 문헌에 의하면 포르투갈의 군사들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에 합류하였다고 기록한다.

8. 루이스 지 후로이스(Luís de Frois: 1532-1597)

이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는 그의 책 『일본사』(História do Japam)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조선은 히라도 섬에서 북쪽으로 80 레구아 떨어진 위치에 있고 (...) 조선은 셋 또는 네 나라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먼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매년 조공을 보내는 조공국가이다. 그리고 북과 북동쪽으로 조선은 타르타르와 오란카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

이 조선왕국에는 남쪽으로 섬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 50 레구아 정도 떨어진 바다에 있다. 이 섬에는 구름을 뚫을 정도로 기이하게 높다고 알려진 산들이 있다. 이 섬은 꼬라이산으로 불린다(역주: 한라산). (...)

사람들은 살갓이 희고 친절하며, 대식가들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활과 화살에 능숙한데 (...) 이들의 배는 견고하고 크며, 위는 텅허 있다. 이들은, 쇠로 만들어진 사석포와 유사한, 화약으로 채워진 용기와 화기들을 사용한다. 이들은 작은 쇠모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너비가 거의 사람의 넓적다리의 폭만큼 넓은 나무로 만든 활에 물고기 꼬리 모양의 형태로 갈라진 아주 날카로운 철을 꽂은 화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절단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무기이다(역주: 거북선). (...)

중국인들과 동일한 문자, 종교, 인간적인 정책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종교는 일본과 동일하다. 이들은 석가와 아미타불을 경배한다. 매우 넓은 강들이 있다. 그리고 이중 하나는 하구의 폭이 10 레

에 들어가서 어개(魚介)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적선을 파괴하는 잠수병이라고 볼 수 있다.

구아에 이른다. 조선왕국이 중국에 가까운 지역에 이르면, 횡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모래로 가득 찬 거대한 사막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

조선에서 쓰시마 섬을 거쳐 일본으로 오는 가장 흔한 물품중의 하나는 매우 아름답고 커다란 호랑이 가죽인데, 이들은 창, 활 그리고 화살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사냥한다(Frois, 1981:543-547).

9. 마누엘 고딩유(Manuel Godinho: 1563-1623), 수학자이며 천체학자인 그는 말라카에서 태어난 포르투갈인으로서 1615년 '아시아 (MAPA DA ASIA)'를 출판하였다. 이 지도는 1615년 현재의 동해를 처음으로 '한국해'(Mar Coria)라고 표기한 지도이다(포르투갈, 1998: 15-20).

Ⅲ. 인도 포어

포르투갈어는 유럽어 중에서 처음으로 인도 땅에 발을 디딘 언어로서 서양의 물질과 문명을 처음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였다. 포르투갈어 어휘가 영어나 아랍-페르시아어에 비하면 현저히 그 수가 적지만 cabi '열쇠', angrej '영국인', tauliya '수건'과 같은 일상적인 용어들은 너무 친숙한 어휘들이어서 외래어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인도의 서해안의 언어인 콩까니어, 남부의 신탄라어와 같은 언어들이 가장 많이 포르투갈어의 어휘를 흡수하였으며 이외에 마라티어, 방갈리어, 구자라티어 그리고 힌디어와 같은 내륙지방의 언어들에서 포르투갈어 어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네팔어에도 cabi '열쇠', mistri '기술공', balti '양동이' 등과 같은 어휘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힌디어를 통하여 침투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힌디어에 편입된 어휘는 100개미만으로 보인다. 힌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부 포르투갈 어휘들과 힌디어로 차용된 어휘 형

태는 아래와 같다.

포르투갈어	우리말	힌디어
chave	열쇠	cabi
janela	창문	jang. la
balde	양동이	balti
camara	방	kam. ra
mestre	기술공	mistari
armário	벽장	al. mari
couve	양배추	gobhi
toalha	수건	tauliya
camisa	셔츠	kamiz
sabão	비누	sabun

(최종찬, 2004: 183)

고아지방에서는 아직도 장년층에서는 포어를 쓰고 있으며 이 포어는 유럽포어와 차이가 있다.

1. 발음

- ① 강음절 직전의 'e'는 마치 'i'처럼 들린다.

piqueno (pequeno의 발음에서 강음절 앞의 축소음 'e'의 발음이 '으' 대신 'i'로 들린다.)

minino (menino의 발음도 위 단어와 같은 경우다.)

- ② que와 quê, porque와 porquê 단어들은 그 용법에 있어 혼동이 일어난다.

O que acontece é quê eles be saibam que terima muitas dificuldades.

(quê 대신 que를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Teve relutância porquê hoje há subsídio, amanhã pode não haver.
(porquê 대신 porque를 써야 한다.)

③ 포어에서 'em'으로 표기되는 비음 이중모음은 e로 축소 받음된다.
bē(bem), sē(sem): 포르투갈에서의 발음은 각각 bēy, sēy이다
(Dolgudo, 1900: 64).

④ 북부 인도-포어의 큰 특징인 강세 없는 모음이나 마지막 음절의 탈락현상은, 고아의 통속어에서조차 규칙적으로 관찰되지는 않는다.
janêr (janeiro), fevêr (fevereiro): 모음탈락 현상.

한편, 고아 지방의 표준어 속에서 가끔 모음이 생략되는 현상도 있다.

mascarenh' (mascarenhas), vam' recomeçar (vamos recomeçar).

⑤ 강세가 점차 낮아지는 이중모음은 폐음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pôco pôco (pouco pouco), janêro (janeiro).

이중모음 'ei'가 축소되지 않을 때는 폐음 'e'로 받음된다.

cadêira, cinzêiro: ei가 그대로 닫힌 음으로 받음된다.

⑥ português를 portuguêso로 발음하지 않고 마지막 자음 s를 ʃ로 하는 현상은 단지 비교양자에게서만 나타났다.

2. 명사

일반통속어에서 가끔 's'를 생략하는 복수형의 축소가 나타난다.

quinze minuto (quinze minutos) 15분

통속어에서건 교양인 젊은층의 언어에서건, 성의 구별에 있어서 혼동이 자주 일어난다.

meu filha (minha filha), aquela meu menina (minha menina)

meu mãe é professora. (minha mãe é professora.)

3. 한편 재귀대명사 'me'의 사용은 드물다.

ele chama para mim papá; ela chama(-me) pai.

소유격 대명사는 가끔 de eu, de ti, de nós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poucos amigos de eu (meus) fala português.

Ele é muito amigo de nós (nosso).

4. 수

100 이상의 숫자 표기에서 연결접속사 'e'를 쓰지 않는다.

cento um (cento e um), cen' dós (cento e dois), cent' vinte (cento e vinte)

5. 성수 일치

명사와 대명사의 성수 일치나 동사의 인칭에 따른 일치는 아주 불규칙적이다.

Quando há outro (outra) gente que eu não gosta (gosto) que ele sabe o que eu estou falar.

6. 동사

1) 연결동사는 가끔 통속어에서 생략된다.

Eu ____ (sou) muito pobre!

Eu ____ (sou) antigo português!

7. 기타

não é? 또는 não é verdade?라는 뜻으로 질문을 끝마칠 때 부사 não이

아주 빈번히 쓰인다.

Ele já foi a Portugal, não? (não é verdade?의 의미)

Ele já tem escrito um livro, não? (não é verdade?의 의미)

8. 전치사는 빈번히 생략되거나, 그 사용이 불안정하다.

___ (Em) Margão muita gente que fala português.

..... o que eu estou ___ (a) falar.

9. 가끔 어휘에서도 차이가 난다.

canna de assucar (cana de açúcar) (Mendes, 1989: 147).

10. Avós (조부모) - 조부모를 부르기 위해서는 avô, avó 또는 avozinho, avozinha, naná (통속어에서 할머니라는 뜻) 등을 사용한다. 부모에게와 같이 조부모도 tu나 você로써 부르지 않고 avô, avó라고 부른다. 부재 시에는 o meu avô, a minha avó라고 말한다.

Irmãos (형제) - 이름이나 애칭을 쓴다. 가끔 어린 형제는 babá, babus 또는 mano라는 말로써 그들의 나이 많은 형을 부르고, baí 또는 mana라는 말로써 누나를 일컫는다.

11. 포어 이름

고아에는 포어로 된 이름이 많은데 특히 고아 의대의 교수들이 많은 포어이름을 가졌다.

Vitor Monteiro, José Coelho, Vasco da Silva, Osvaldo de Sá, Sílvia Fernandes e Andrade 등.

12. 거리, 건물, 기념비 등의 이름

많은 거리에는 포어 이름이 주어져 있다. 예를 들면, a Rua Diogo do Couto, a Rua Travessa de Delhi 등이 있으며, 또한 많은 호텔, 식당에도 포어이름이 있다. Hotel Fidalgo, Hotel República, restaurante O Pescador. 심지어는 고아 주지사 관저도 Forte do Cabo 또는 Palácio do Cabo라고도 불리고 있다 (Batalha, 1982: 69).

IV. 말라카 포어

1511년 4월 아폰소 지 알부게르끼 (Afonso de Albuquerque)가 말라카를 점령한 이래 포르투갈인들은 아시아지역에서의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인들은 성당과 학교를 설립해서 포르투갈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이곳에 거주하는 중년들은 변형된 포어를 쓰고 있다.

포르투갈인들은 말라카와 말루꾸 군도 등 여러 지역에 그들의 문화적 흔적을 남겼다. 기타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이 지역의 로맨틱한 민요 ‘꺼론쵡(Keronchong)’은 포르투갈문화의 흔적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는 옛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했던 모우루(Mouro)의 기원이며 모리스꼬(Morisko)는 까보 베르지의 음악과 춤과 노래를 곁들인 대중가요이며 이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몇몇 현대 음악의 기초리듬으로 쓰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어의 많은 단어들이 포르투갈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날 까지도 암본지방에서는 포르투갈인들의 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	포어	우리말
pesta	festa	파티

sabun	sabão	비누
sepatu	sapato	구두
bandera	bandeira	깃발
meja	mesa	책상
Minggu	domingo	일요일
jendela	janela	창문
gereja	igreja	교회
lemari	armário	찬장
mesquipun	mas que embora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nhonha	senhora	여주인, 기혼 여성
tukar	trocar	바꾸다
keju	queijo	치즈
kereta	carreta	마차
sekhola	escola	학교
keneja	camisa	상의
tempuh	tempo	기후
rasário	rosário	목주
roa	rua	길 (Pires, 1995: 128-129)

또한 옛 자장가 Krontijoa Nina Bobo도 영향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말루꾸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성씨 중 드 가스파(de Casta), 디아스(Dias), 드 프레이타스(de Freitas), 곤잘베스(Gonsalves), 멘도자(Mendosa), 로드리게스(Rodrigues), 드 실바(de Silva) 등은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것이다(양승윤, 1994: 63).

매년 성탄절 때에 안도라나(Andorana)에서 신부가 신랑을 선택할 때 틀림없는 포르투갈 어원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언이 몇 가지 있다. 처녀가 여러 신랑 후보들 가운데 serdado (soldado 군인), um pinto (화가),

um pidagu (fidalgo, 귀족), um doktor (doutor 박사), um oriwis (ourives 금세공인), um caschador (상인) 등이다. 신부는 마지막 상인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는 그가 muito dinjer (muito dinheiro 많은 돈)을 가진 것 때문이었다(Pires, 1995: 124).

1. 말라카의 포르투갈인들

영어로 Portuguese Settlement, 말레이어로 Kampung Portuguis 또는 Kampung Seranis로 알려진 말라카의 포르투갈인 지역은 1930년 포르투갈인 선교사인 Alvaro Martin Coroado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곳을 “신부의 땅”이라 부른다. 이 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으며 초기의 거주민 중 한 포르투갈인 George Bosco Lazarro는 “포르투갈처럼 바닷가에 세워진 정원”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1511년 말라카의 점령 때에 Afonso de Albuquerque를 동반했던 40인의 기병들이 그 지역의 여자들과 결혼한 이후로 포르투갈인들의 종족 혼혈은 계속되었다.

포르투갈인 지역엔 Albuquerque(Malaca 정복자), Sequeira(정복에는 실패했지만 1509년 말라카에 도착했던 최초 포르투갈 항해자 Diogo Lopes de Sequeira를 기념하기 위해), Teixeira(말라카의 군주에게 선물을 제공하도록 Sequeira가 보낸 관료), Araújo(포로였던 한 포르투갈인), Eredia(1615년 말라카의 역사를 출판한 Manuel godinho Eredia를 기리기 위해)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도로도 있다. 어떤 집에는 Afonso de Albuquerque 또는 성인의 초상화가 있고 많은 가정에는 포르투갈을 상징하는 물품들이 있다. 즉, 수집한 옛날 동전, 우표, Barcelos의 수탉, 포르투갈 동전인 escudo, 녹색과 붉은색의 국기 등등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어부였으나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인 판사, 대사, 많은 변호사 그리

고 교수들이 배출되었고, 대부분 공공기관과 지역에 들어선 공장들에서 일하고 있다. 말레이 지명을 살펴보면 수많은 포르투갈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 몇 개만 열거하자면, Pintos, boscos, Fernandes, Lopes, Rosários, Albuquerque, da Costa, de Melos, Teixeira, Pereiras, Sequeiras, de Sousas, Monteiros, Dias, Carvalhos, Colares, Santa Marias 그리고 Almeidas 등이 있다. 물론 지금은 철자가 약간 바뀌어 Teixeiras는 Teseirahs로, Fernandes는 Fernandis, Lázaros는 Lazarros, Sequeiras는 Sequieras 그리고 Aránjos는 Aranjós로 바뀌었다.

2. 말라카 포어

말라카 포어(이하 Kristang이라고 칭함)

Kristang어에는 거의 모든 포어의 알파벳이 쓰이지만 gente와 já에서와 같이 발음되는 g와 j는 없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는 dj로 대체된다. d가 dj의 발음의 경음이고 j의 입천장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c발음은 s로 ch는 스페인어의 tch로 대체되었다.

peixe → peice로

achar → atchá로

ai, ei, eu, au, iu, oi등의 이중모음은 변화되었고 이중 비모음은 사라졌다.

ão은 ang로 변화되었다.

예) coração → coraçang

botão → botang(Rego, 1942: 11)

3. 명사

1) 명사의 수는 말레이지아어처럼 반복해서 복수를 나타낸다.

fila-fila = filhas macho-macho = 남자들 homi-homi = 사람들

2) 다른 형태의 복수로 tanto, muito로 쓰인다.

tanto libro 많은 책 tanto gente 많은 사람 muito cachorro 많은 개

4. 형용사

형용사는 이렇게 바뀐다.

Coração grande - Generoso

Coração alegri - Feliz

Coração limpo - Puro

Coração quente - Zangado

Olo torto - Cego

Olho grande - Ambicioso

포도아어 비교급과 유사한 흥미로운 형태도 있다.

Preto como carbão 숯처럼 검은

Berde como fola 나뭇잎처럼 푸른(verde como folha)

Alto como montanha 산처럼 높은

Quente como fogo 불처럼 뜨거운

Duro como ferro 쇠처럼 단단한

Azedo como vinagre 식초처럼 신

5.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인칭대명사는 아래와 같이 쓰인다.

	단수	복수
1	yo	nu-nus
2	bo-bos	bolotu

3 e-el-ele olotu

eli는 남녀 같이 쓰인다.

“gente”는 종종 “eu” 또는 “mim”의 뜻으로 쓰인다.

êsti, gente unsong, já fazê: fui eu que fiz isto (이것은 내가 했다.)

6. 소유대명사는(mio(meu), minha)는 많이 쓰이며 'sa'는 소유 전치사 de와 쓰임이 비슷하다.

eu sa, ou eu sua = meu, minha

bôs sa, bôs sua = seu, sua

êli sa, êli sua = dele, dela

nôs sa, nôs sua = nosso, nossa

7. 동사

① 동사원형은 구개음이다.

abrí - abrir fechá - fechar tocá-tocar comí-comer andá-andar

② 동사의 시제는 다음과 같다(마카오 포어도 이와 같다).

- 과거는 já를 쓴다.

elé ja bai mar onti anoti(그는 어제 밤 바다로 갔다.)

- 현재는 ta를 쓴다.

elí ta gordu(그녀는 뚱뚱하다, 남녀 같이 쓴다)

john ta duénti(존은 아프다)

- 미래는 logo, lo를 쓴다.

aniáang otudia, eli logo bai mar. (모래 그는 바다로 갈 것이다.)

kantu yo ten dai, yo lo komprá kareta. (돈이 있으면 나는 차를 살 것이다.)

- kaba를 써서 과거 완료를 만든다.

kora yo ja chejá, ele ja kabai bai.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났었다.)

8. 부사

presta 빨리 bag 천천히 eli ja ben presta. 그는 곧 올 것이다.
riba 위에 basu 밑에 fora 밖 rentu-drentu 안

9. 시간은 나타내는 부사

onte 어제 ozndia-ozí 오늘 amiang 내일 pamiáng 아침
예) amiáng sabdu. 내일은 토요일이다.

nanggora 바로 지금 antis 전에 algumesu 바로 지금
dispóis 나중에 fing 끝 mazantí 먼저
예) mazantieli lo ai misa. 먼저 그는 미사에 갈 것이다.

anu pasadu 지난 해 otu anu 내년 amiáng otu dia 모래
oní otu dia 글피
예) mambés eli teng aki. 다시 그는 여기 있다.

10. 의문부사

úndi 어디 kóra 언제 kifói 왜 kái-klái 어떻게
예) úndi bos ja pari? 너 어디서 태어났니?

11. 비교부사

menus 열등 más 우등 chuma, kuma 등등

12. 소유격의 sa

yo sa kaz 나의 집 bos sa mai 너의 어머니 nus a mai 우리 어머니

13. 포어의 di도 같이 쓰인다.

fola di figu 무화과 잎 - fola figu kaza di pedra 돌집 - kaz pedra

예) kareta di Albert teng na diánti. 알베르트의 차가 우리 앞에 있다.

Albert sa kareta ten na diánti. 알베르트의 차가 우리 앞에 있다.

aké kareta di Albert. 저 차는 알베르트의 것이다.

aké kareta Albert sa. 저 차는 알베르트의 것이다.

	<u>sa</u>	<u>di</u>	
인칭대명사	sa yo sa kaza	kaza di yo	나의 집
고유명사	John sa kaza	kaza di John	존의 집
장소이름	Trankera sa jenti	jenti di Trankera	Trankera의 주인
일반명사	baka sa kandri	kandri di baka	물소고기

14. 기타 형용사

① 크기

grandi 큰 kaninu 작은 soné 적은 kumpridu 긴

② 감각적 특징

duru 딱딱한 moli 부드러운 pezadu 무거운 lebi 가벼운

③ 색깔

pretu 검은색 brangku 흰색 bramilu 빨간색 marelu 노란색

④ 감정

síumi 질투심이 있는	amorozu 사랑스러운	alegri 행복한
chadu 나쁜	gabadu 자랑스런	
bemfetu 멋있는(남)	bemfeta 멋있는(녀)	

⑤ 나이

belu 늙은(남)	bela 늙은(여)
nubu (새로운, 젊은)	antigu 아주 늙은

⑥ 가치

bong 좋은	mal 나쁜	riku 부유한	pobri 가난한
---------	--------	----------	-----------

⑦ 위치

lonzi 먼	petu 가까운	fundu 깊은
---------	----------	----------

15. 가끔씩 다르게 쓰이는 단어도 있다

(K)	(P)
chagar	ferida 상처
tocado	bêbado 술주정뱅이
gumitar	vomitar 토하다
cagar-cagar	diarreia 설사
camerado	amigo 친구
chupar leite	mamar
cabelu de olu	pestana
muito mercê	muito obrigado

16. 그 외 표현

Qui bos nome	Como se chama?
--------------	----------------

De onde bos jabem	Donde vem?
Bos kai tem	Como está?
Bos qui quer beber	O que quer?
Esti comeria muito	É muito saboroso.

17. 반복

- ① 명사의 반복은 복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lagratu-lagratu (crocodiles)
- ② 동사의 반복은 행동이나 행위의 반복됨을 나타낸다.
ela ta anda-anda (he kept on working)
- ③ 형용사의 반복은 강도나 세기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sibrisu isi fasta-fasta (this work is very easy)
- ④ 부사의 반복은 강조를 나타낸다.
undi-undi (wherever) (Hancock, 1975: 15)

V. 마카오 포어

1535년 포르투갈사람들이 마카오를 점령함에 따라 마카오는 서양문화 특히 포르투갈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포르투갈어인데 그 당시 마카오에서 많이 쓰고 있었다. 포르투갈 사람뿐만 아니라 마카오 거주민들도 포어를 배워 쓰고 있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편의상 중국 글자 옆에 라틴어 발음을 붙여 외웠고 중국인들은 포어를 배우는데 한자 발음을 다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포어는 결국 마카오 말로 변화되었고 이 말을 patuá 혹은 papia Cristam di Macau(Christian Speech of Macau) 혹은 Dóci

Língua di Macau(Sweet Language of Macau), Doci papiaçam(Sweet Speech) 라고 한다. Patuá는 16세기 중반에 생겨났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아왔다.

1. 발음

- ① 이중모음의 축소 ou→u cousa→[kúsa] ouvir→[úbi]
- ei→i candeia→[kãdia]
- ② 비음화된 이중모음의 축소 bem→[bê]
- ③ 상승 이중모음의 축소 ua→u água→[ágũ] tábua→[tabu]
- ④ r의 중복진동음과 r 단순 진동 모음의 교체 및 혼동
- terra→[téra] correr→[koré]

2. 성

포어의 몇몇 여성 명사는 마카오에서는 남성으로 쓰인다.

a fim → o fim 목적 a mar → o mar 바다
caiu na mar(no mar) 바다에 빠졌다.

3. 복수

복수는 단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malaio-português 영향이다.

quiança-quiança → crianças 어린 아이들
casa-casa → casas 집들
cedo-cedo → muito cedo 아주 일찍

4. 다음은 중국어 영향이다.

Iân-iân → todas as pessoas Iât-iât → todos os dias

5. 복수는 단수 반복이지만 성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dois pataca → patacas vestidos branco → brancos
casas novo → novas mão qui pequeno → mão que pequena

6. 소유격

강한 소유의 표현은

sua + pronomes e substantivos

ele sua → dele 그의

vossôtro sua → de vós, vosso 그들의

이런 형태의 포어는 마카오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pronome sua는 sa로 축소되었다. 말라카 포어와 같다.

eu-sa mão	- 나의 손
ele-sa casa	- 그의 집
gente-sa roupa	- 그의 옷
Maria-sa mãe	- 마리아의 어머니

젊은이들은 가끔씩 이렇게 혼동하여 쓰일 때도 있다.

de eu sa 혹은 é de meu sa → minha

7. 대명사

unga	→ uma	estunga	→ esta
um song	→ ele ou ela	vossôtro	→ vós

ilôtro → eles ou elas

8. 명사

① 16세기나 중세기 고전 포어의 흔적이 남아있고 일반적으로 노년에 속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

<u>asinha</u> (depressa) 빨리	<u>ade</u> (pato) 오리
<u>pateca</u> (melancias)수박	<u>sam</u> (ser) 이다

Sam 동사는 고전 포어의 단수 1인칭(sou)으로 쓰였으나 마카오에서는 모든 인칭에 쓰인다.

nunca sam = não é (Batalha, 1988: 125)

② 외국어 가운데는 인도 영향이 크다.

<u>aluá</u> (doce) 과자	<u>chale</u> (beco) 오솔길
<u>daia</u> (parteira) 산과	<u>jambo, jambolão</u> (frutas) 과일이름

③ 홍콩영어의 영향도 있다.

<u>dangeroso</u> (perigo)	dangerous
<u>spitune</u> (escarrador)	spitton

④ 말레이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주로 음식에 관한 것).

o <u>jangom</u> (maçaroca de milho)	옥수수 다발
o <u>balachâm</u> (tempero)	조미료

a saraça(manto colorido na cabeça) 머리에 쓰는 천

o baju(espécie de blusão) 블라우스 일종

⑤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고어(주로 할머니들이 사용)

Nhonha(rapariga solteira) 젊은 주부 Nhim, nhi(menina) 소녀

Nhum(rapaz novo) 소년 sium(senhor) 군

9. 동사

① 마카오 동사변화는 한 가지 동사로 모든 인칭에 쓰인다.

eu sabe nós sabe eles sabe

② 동사의 시제는 아래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뀐다 (말라까 포어와 같다).

- 현재는 동사 앞에 tá를 붙인다.

Tá vai 간다

- 과거는 동사 앞에 já를 붙인다.

Já vai, já vai já 갔다(foi)

- 미래는 동사 앞에 logo를 붙인다.

Logo vai, lô vai 갈 것이다

③ 모든 동사는 원형이나 단수 3인칭으로 쓴다.

Você há pouco mesmo dizê nã qué, agora está pidi.

- Você há pouco mesmo dizer não quer, agora está a pedir.

Ele nã pode vem.

③ Nós nã qué vai.

- Ele não pode vir.

- Nós não quer ir.

Ⅶ. 나오는 말

1498년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였고 이어 1510년 알부케르키가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이후 고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와 인도어에 이어 포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몇몇 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아직도 고아의 많은 사람들이 포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교회, 거리 등에서도 포어 이름이 붙여져 있다.

고아 포어는 음성학적 형태학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음성학적인 면이 다른 면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 50세 이상 중년 이상 층은 포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1511년 아폰스 지 알부케르키가 말라카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포인들은 성당과 학교, 병선을 짓고 포르투갈 문화전파에 힘썼다. 현재까지 말라카에는 포도아인촌(Portuguese settlement)에는 1400여 명의 포도아인 후손들이 다른 종족들과 결혼해서 거대한 가족을 이루면서 포어인으로 자존심을 갖고 살고 있다.

이들은 아직 포어를 쓰고 있으나 50대 이상은 거의 모두가 쓰고 있으며 음성학적, 형태학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받고 있다. 특히 형태학적인 면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 특유의 말라카 포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인 마카오는 1535년 포르투갈이 점령한 이래 이 지역은 동양의 포르투갈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가 이곳에서 포르투갈 주교들을 포함한 서양 선교사 밑에서 오랫동안 천주교리와 서양 문화를 배웠으며 한국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포어를 배웠다.

아직도 포어가 공식용어로 쓰이고 있고 시내의 간판, 거리 등은 포어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세 지역은 포어가 구어체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간판, 거리, 사람 이름, 각종 서류에 사용되고 있고 유럽 포어라는 문법에 맞지 않는 변형된 포어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고아나 말라카의 50세 이상 중년층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으나 마카오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끝으로 유럽포어와 아시아 포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Portugal	Malaca	Macau
동사	sei	sabe	sabe
복수	casas	casa casa	casa casa
소유격	minha casa	Yo sa casa	eu sa casa
현재	vai	tá vai	tá vai
과거	foi	já vai	já vai
미래	irá	logo vai	logo vai

참고문헌

- 김태정(1997), 『음식으로 본 동양문화』, 서울: 대한교과서.
 신용철(1999), 『마카오 1999』, 서울: 우석.
 양승윤(1994), 『인도네시아사』,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정성화 외(2008), 『임진난의 기록』, 서울: 산림.
 조길태(1994), 『인도사』, 서울: 민음사.
 조선일보(2009), 11월.
 최중찬 외(2004), 『힌디어발달사』, 서울: 외대출판사.

- 포르투갈(1998), 『포르투갈-국가, 역사, 문화』, 서울: 포르투갈문화원.
- Barreiros, Leopoldo Danilo(1943/44), "Dialecto Português de Macau,"
Renascimento.
- Batalha, Graciete Nogueira(1958), *Língua de Macau - O que foi e o que é*.
Imprensa Nacional de Macau.
- _____ (1982), *Língua e cultura portuguesas em Goa*,
Macau, Edições de Educação e cultura.
- _____ (1988), *Suplemento ao Glossário do Dialecto
Macaense*, Macau: Instituto Cultural de Macau.
- Coelho, Francisco Aolfo(1880-86), "Os dialectos românticos ou neo-latinos na
África, Ásia e América", *BSGL* 2a série.
- Dalgado, Sebastião Rodolfo(1900), "Indo-Português de Goa", Lisboa: *Revista
Lusitania*.
- Fróis, Luis de(1981), *Historia de Japam*, Biblioteca Nacional.
- Hancock, Ian F(1975), *Malaca creole portuguese*, Austin: University of
Texas.
- _____ (1975), *A transformational outline of Papiá Kristan*, Austin:
University of Texas.
- Hermida, António José(1970), *História do Brasil*, São Paulo: Companhia
Editora Nacional.
- Jesus, Maria de(1996), *Goa-setecentésta*, Lisboa: Universidade de Católica
portuguesa.
- Majudar, R. C. Maui(1979), *Currentes of Indian History*. New Delhi.
- Marquês, A. H. de Oliveira(1972), *História de Portugal*, Lisboa: Palas
Editores.

Mendes, A. Lopes(1989), *A Índia portuguesa*, New Delhi: Asian Educational Services.

Pires, Benjamin Videira(1995), *Presenças de Portugal na Ásia*, Macau: Instituto Cultura de Macau.

Rego, Antonio da Silva(1942), *Dialecto português de Malaca*, Lisboa: Agência geral das colônias.

榎垣実(1963) 『日本外来語の研究』 東京；研究社出版、pp.50-58.

||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 심사완료일자: 2010년 6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